

中, 8개월 만에 대만포위훈련...美 '사상최대' 무기판매 겨냥

육·해·공·로켓군 동원...“종합 통제권 탈취·항만 봉쇄·외곽 차단 훈련 목표”

美 자폭드론·전술 네트워크 등 대거 포함...대만총통 “中, 침공 실력 부족”

중국군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8개월여 만에 다시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국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2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날부터 동부전구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등 병력을 조직해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서남부·동남부·동부에서 ‘정의의 사명-2025’ 훈

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부전구 대변인은 “해·공군 전투 대비 순찰과 종합 통제권 탈취, 주요 항만·지역 봉쇄, 외곽 임체 차단 등 과목이 (훈련의) 중점”이라며 “함선·항공기가 여러 방향에서 대만 섬에 접근하며 여러 군종이 협동 돌격하는 것으로 전구 부대의 협동 작전 실전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

라고 설명했다.

동부전구는 이날부터 해군·공군 병력을 조직해 ‘대만 섬을 둘러싸는’(環台島) 전투 대비 순찰을 한다며 1일자인 이날은 “대만해협 중부 해역·공역에서 전투기·폭격기·무인기(드론) 등 병력이 원거리 화력과 협동해 육상 기동 목표 타격 훈련을 하고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한다”고 했다.

2일차인 30일에는 오전 8시~오후 6시(현지시간) 대만을 둘러싼 다섯 개 해역·공역에서 ‘중요 군사 훈련’과 실탄 사격을 할 예정이라고 동부전구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이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간섭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고, 국가 주권을 지키며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8개월여 만에 다시 이뤄진 이날 훈련은 시기상으로 미국이 이달 들어 대만에 역대 최대급인 111억540만달러(약 16조원) 어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과 근접해, 미국과 대만을 겨냥한 경고성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정부가 지난 18일 승인한 대(對) 대만 무기 판매 리스트에는 다연장로켓 하이마스와 M1

07A7 자주포, 자폭 드론 등 공격용 무기와 더불어 전술 임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이 대거 포함됐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승인 당시 “미국이 무력으로 독립을 돋는다면 스스로 지른 불에 불타 것이다. 중국은 단호하고 힘 있는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안보, 영토 완전성을 지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 차례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이면서 군사 행동의 빈도와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멕시코 아순시온 익스플레스 지역에서 오악사카행 인터오세아닉 열차가 탈선해 멕시코 병사들과 민방위대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멕시코 열차 탈선...“13명 사망·98명 부상”

정부 역점사업 철도 구간서 참사

올해 韓자동차 물류 시험이송 루트

멕시코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추진해 개통한 철도 노선에서 28일(현지시간) 여객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멕시코 해군(SEMAR)은 이날 엑스(X-엣터)에 “테우안테페 지협을 통과하는 철도 Z 노선에서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탑승자 지원과 복구를 위해 현지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객 241명과 승무원 9명을 태운 해당 기차는 이날 아침 오악사카(와하카) 주(州) 살리나크

루스를 출발해 베라크루스주 코아트사코알코스로 향하던 중 오악사카니산다마을 인근에서 철로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소셜미디어에는 철로를 이탈해 멈춰선 객차에서 승객들이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공유됐다.

사고 초기에는 피해 규모가 ‘부상자 10명 안팎’으로 보고됐으나, 당국의 추후 사실관계 파악을 거쳐 사상자수는 100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멕시코 해군은 이날 오후 6시께 낸 보도자료

에서 “유감스럽게도 13명이 숨진 사실을 확인 했다”며 “부상자는 98명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36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엑스

에 같은 내용을 공유하면서 “내부부와 해군에 유족을 살피도록 지시했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멕시코 정부는 이 철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미주와 아시아 대륙 사이 국제 물류 운송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나이가 서는

파나마 운하 대체 노선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수출용 한국 자동차가 올해 테우안테페 지협 횡단 열차를 통해 시험 운송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열차 탈선 이후 현지 당국의 안전 체계 구축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전까진 육·해상 통합 물류 이송 루트가 본궤도에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고흐 대표작 ‘별밤’ 물리학 현상 논쟁 가열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1853-1890)의 가장 유명한 작품 ‘별이 빛나는 밤’(1889·사진)에 ‘난류’(亂流·turbulence)라는 물리학 현상이 드러나 있다는 논문이 이어 반박 논문이 나오는 등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현지시간) 전했다.

‘난류’는 물리학과 기계공학의 유체역학 부문에 나오는 개념으로, 압력과 속도 등이 불규칙하게 변화하면서 움직이는 기체, 액체 등 유체의 흐름을 가리킨다.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붙은 것은 학술지 ‘유체의 물리학’(Physics of Fluids)에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숨겨진 난류(Hidden Turbulence in van Gogh's The Starry Night)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된 2024년 9월이었다.

이 논문에서 중국 사민(廈門) 대 속초 마인상(馬寅翔), 황용상(黃永祥) 등 연구자들은 ‘별이 빛나는 밤’에 나타난 반 고흐의 필치를 분석해 본 결과 난류 현상이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흐의 필치에 나타나는 패턴이 소련의 위대한 수학자 안드레이 콜모고로프(1903-1987)가 밝혀낸 난류 관련 스펙트럼 법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결과는 비전문가 대상 언론매체들의 대대적 보도로 발표 당시 엄청난 화제를 끌었다.

하지만 유체역학 전문가인 미국 워싱턴대 기계공학부의 제임스 라일리 명예교수는 “논문을 내려받아 읽어봤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결



일게 됐다. 그냥 아예 말도 안 된다”고 평가했다.

리얼리 교수의 대학원 지도교수는 콜모고로프의 난류스펙트럼 법칙을 확장한 연구도 했던 유체역학의 대가 스탠리 코신(1920-1986) 존스 톱킨스대 교수였다.

리얼리 교수와 베지니아 카먼웰스대 소속 모하메드 가드-엘-하크는 2025년 3월에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난류가 숨겨져 있는가? (Is there hidden turbulence in Vincent van Gogh's The Starry Night?)라는 제목의 반박 논문을 학술지 ‘난류학회지’(Journal of Turbulence)에 게재했다.

두 사람은 마인상, 황용상 등이 낸 논문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결론”이라며 “정상적인 경우라면 저자들의 주장은 난류 연구자들에 의해 당장 기각될 것”이라며 매우 가혹한 어조로 비판했다.

/연합뉴스

‘中우주선 탑승’ 생쥐, 지구귀환 후 출산

중국이 쏘아 올린 우주선에 탑승해 보름간 우주에서 지내다가 귀환한 생쥐가 출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홍콩 성도일보와 중국 매체 평화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공간응용공정및기술

센터는 중국의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21호’를 타고 우주에 갔다가 지구로 돌아온 암컷 생쥐가 지난 10일 오전 6시께(현지시간) 새끼 9마리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태어난 새끼 중 6마리가 살아남았다. 이러한 생존율은 정상에 속한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 입니다!

-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 신속하고 확실한 A/S
-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루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